

시인 魯迅에 대한 小考*

鄭雨光**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憂民과 愛族의 전통사상의 계승
3. 저항과 전투정신의 상징화
4. 滑稽美: 해학을 통한 비판적 현실 인식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국현대문학의 아버지’로 만인의 추앙을 받고 있는 루쉰魯迅(1881-1936)은 ‘입인(立人)’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적 사고를 문학에 기탁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자존과 독립의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이렇듯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그의 정신은 《呐喊吶喊》과 《彷徨彷徨》 속에 수록된 총 25편의 소설에서 계몽적인 모습으로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그가 죽기 전까지 심혈을 기울이다 1936년에 출판했던 《고사신편故事新編》은 중국의 역사와 신화·전설로부터 소재를 취한 총 8편의 창작 소설집으로 참신한 기법과 넘쳐나는 풍자와 유머로 독자들을 즐겁게 하지만, 이 소설들의 근저에 흐르는 정서는 결국 一義적인 ‘立人’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1년도 교내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 wkjung@sookmyung.ac.kr

루쉰에게 ‘立人’의 정신은 수많은 잡문집인 《무덤墳》·《열풍熱風》·《화개집華蓋集》·《화개집속편華蓋集續編》·《이심집二心集》·《삼한집三閑集》·《이이집而已集》·《남강북조집南腔北調集》·《위자유서僞自由書》·《준풍월담淮風月談》·《화변문학花邊文學》·《차개정잡문且介亭雜文》 등에서 때로는 현실의 어둠과 절망을 깨우는 ‘비수(匕首)’와 ‘투창(投槍)’으로 때로는 억압과 좌절의 분을 푸는 ‘석분서정(釋憤抒情)’¹⁾의 산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노예가 아닌 살아 숨 쉬는 개체의 생명력에 대한 처절하고 결연한 근대적인 자아의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그의 글쓰기 속에서는 ‘현실전투정신(現實戰鬥精神)’과 ‘현대반항의식(現代反抗意識)’으로 체현되고 있는데, 강자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으며 약자의 우둔함에는 더욱 영합하지 않고, 현실 정치의 강압에 반항할 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인류 생존의 근간에 반항하는 전투정신과 반항의식으로 드러나고 있다.²⁾

루쉰의 소설과 잡문처럼 산문에서도 ‘立人’의 정신은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들풀野草》³⁾(1924년 9월부터 1926년 4월 사이 씌어짐)과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朝花夕拾》(1926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씌어짐)로 대표되는 루쉰의 산문의 세계는 詩情과 哲理가 고도로 융합되어 있다. 일본의 영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구리야가와 하쿠손 廚川白村(1880-1923)의 《고민의 상징 苦悶的象徵》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은 루쉰은 《들풀》에서 기이한 상징적인 이미지들로 자신 영혼 속의 고민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루쉰의 내면 깊숙이

1) 루쉰은 《華蓋集續編》의 <짧은 머리말小引>을 1926년 11월 16일 《語絲》周刊 第104期에 발표했는데, 이 글에서 《華蓋集續編》 속의 雜文들의 성격을 “약간 자화자찬해서 말한다면, 슬프고 기쁠 때에 울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단지 이것(이 글)에 기탁하여 분을 풀고 감정을 토로할 뿐이었고, 지금에서는 더욱이 누구와 더불어 소위 정당한 도리나 정의를 빼앗기를 바라지도 않는다(說得自誇一點, 就如悲喜時節的歌哭一般, 那時無非借此來釋憤抒情, 現在更不想和誰去搶奪所謂公理或正義)”고 언급하고 있다. 《魯迅全集》3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183쪽 참조.

2) 程光輝·吳曉東·孔慶東·郜元寶·劉勇 主編, 《中國現代文學史》(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0), 57쪽 참조.

3) 《들풀》은 1927년 발표될 때 써진 <서문題辭>을 포함하여 총 24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들풀》의 형식은 분명 서구 문학으로부터 빌려온 ‘산문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들풀》이 산문이라기보다는 시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논지의 전개에 위해 《들풀》 속의 산문시들은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잠재하고 있는 좌절과 상실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으려하지 않는 저항정신을 표현한 이미지들은 매우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기까지 하다. 그는 살아생전 《들풀》과 같은 산문시를 또다시 쓴 적이 없다. 1927년 이후 극적으로 변한 정치적인 압박은 사회·정치적인 싸움터로 그를 내몰았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저널리즘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인간적인 ‘고민의 상징’마저도 흡수하여 버렸다. “우리가 만약 부식하는 그의 폐시미즘에 대해, 그의 성격의 핵심이자 모든 창작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회의론과 반항정신의 자기모순적인 혼합에 대해 완전하게 측량하기를 바란다면, 가장 생생한 표현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들풀》이라고 할 수 있다.”⁴⁾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는 <머리말小引>과 <후기後記>를 제외한 10편의 산문으로, 유년 시절·학창 시절·일본 유학 시절·북경 시절 등 과거사 중에서 그의 문학적 역정에 큰 영향을 준 기억들을 뽑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유년 시절에 대한 것을 많이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과 인류에게 유년 시절은 시종일관 마르지 않는 예술 영감의 원천이란 사실과 그 시절의 풍부했던 감성과 상상력이 ‘立人’하는 원동력임을 환기하는 것이다.

24편의 《들풀》의 ‘산문시’를 제외하고 魯迅이 살아생전 모두 몇 수의 시를 썼는가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⁵⁾ 이러한 원인은 魯迅이 자신의 시

4)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Pierre Ryckmans, “Yecao 野草,” in *A Selective Guide to Chinese Literature 1900-1949: The Poem*, ed. Lloyd Haft (Leiden: E.J. Brill, 1989), 177-179쪽.

5) 魯迅 시에 대한 주해서 중에서 가장 완정하고 권위 있는 길라잡이로 인정받고 있는 책은 魯迅 著 周振甫 注, 《魯迅詩歌注》(江蘇: 江蘇教育出版社, 2006)이다. 이 책은 1962년에 杭州의 浙江人民出版社에 의해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저우전푸周振甫(1911-2000)는 魯迅의 현존하는 시들은 모두 62편의 제목 아래 썬어진 79수라고 하며, 魯迅의 시를 크게 4부분으로 분류하여 舊體詩, 新詩, 民歌體詩, 軼詩로 나누고 있다. 또한 張自強은 《魯迅先生詩疏證》의 <일러두기凡例>에서 “이 책은 지금까지 발견할 수 있는 魯迅의 舊體詩 60편의 제목 아래 썬어진 77수를 수록하고 있고, 그 중에는 民謠體의 정치풍자시와 젊은 시절의 聯句, 두 수의 산일된 시구를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張自強 著, 《魯迅先生詩疏證》(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을 참조. 4수의 민가체 정치풍자시인 <공민 교과목의 노래 公民科歌> · <잘난 놈들의 노래 好東西歌> · <난징민요 南京民謠> · <언사 논쟁의 노래 言詞爭執歌>를 저우전푸의 책에서는 ‘民歌體詩’의 분류 속이다. 張自強의 책에서는 魯迅의 일대기를 기준으로 ‘上海時期’의 시들 속이다. 저작 연대순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꿈夢> · <큐피트愛之神> · <복사꽃桃花> · <그들

고를 보관한 적이 드물기 때문이다. 시고의 대부분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주기도 했고 雜感이나 소설 속에 끼워 쓰기도 했다. 이것은 시를 쓰는 그의 취지가 일시적인 性情에 기인한 것이지 전심전력을 다해 시의 창작에 몰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그가 시의 예술성을 중시하지 않았거나 그의 시에 존재하는 비범한 예술성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선의 시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다른 장르와 비교할 때, 《들풀》을 제외하고 국내에서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분야이기도 하다.

루선의 시는 자신의 삶의 궤적을 보여 주기에, 그가 창작한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시를 통하여 한평생 조우했던 사람들, 경험했던 개인적인 행복과 불행, 당했던 국가적인 재앙과 고난, 겪었던 사회적인 대립과 충돌 등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하기에 그가 남긴 시 전체를 감상한다는 것은 그의 일생에 대한 슬라이드 쇼를 감상하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루선의 대표적인 시들을 살펴 보면서, 그가 단순히 古體詩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현대적인 의미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실천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심미적 특색으로 ① 憂民과 愛族의 전통사상의 계승 ② 저항과 전투정신의 상징화 ③ 滑稽美-풍자와 해학을 통한 비판적 현실 인식 등을 분석의 틀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의 꽃밭他們的花園> · <사람과 때人與時> · <그他>란 6수의 '新詩'와 <나의실연我的失戀>이란 옛날 詩體인 打油體를 모방한 시로 張自強은 이 7수의 시들을 舊體詩에서 제외시켜 그의 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7수만을 더한다 하더라도 張自強의 77수는 84수가 된다. 최근의 논문에 따르면 루선은 살아생전 근 100수에 달하는 시를 창작했는데 그 양식으로는 古體詩, 新詩, 打油詩, 동요(兒歌) 등이 있다고 한다. 王吉鵬·翟億存, <先生本色是詩人 — 評李梓, 李楠《魯迅詩論稿》>, 《淮北職業技術學院學報》 第11卷 第3期 (2012년 6월), 142쪽 참조.

2. 憂民과 愛族의 전통사상의 계승

루쉰 시의 기저에 깔고 있는 사상이 憂民과 愛族의 정신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儒家의 숭고한 仁愛精神과 강렬한 憂患意識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암흑, 백성의 질고를 시에다 반영하며 盛唐의 성쇠란 역사적 거변을 기록했던 杜甫(712-770) 시의 사상을 계승한 면이 있다. 루쉰이 23살에 쓴 <내 작은 사진에 쓰다自題小像>를 보면 憂民과 愛族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내 마음 큐피드의 화살을 피할 길이 없어
비바람은 반석처럼 고향을 거무스름하게 덮고 있구나
우리 동포들 깨어나지 못하노니 내 저 차가운 별에 기탁하여
내 뜨거운 피를 조국에 바치노라⁶⁾

七言絶句인 위의 시는 1903년 루쉰이 일본 동경의 弘文學院에서 유학할 때에 쓴 작품으로 베이징 루쉰박물관 입구의 벽에 양각되어질 정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당시 23살이었던 그는 변발을 자른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위의 시를 적어 한평생 막역한 친구인 쉬서우창許壽裳(1883-1948)⁷⁾에게 보냈다. 쉬서우창은 “루쉰이 1936년 10월 19일 서거하자 10월 27일 <내가 아는 루쉰我所認識的魯迅>이란 글을 《새싹新苗》 第11冊

6) 《魯迅全集》 7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423쪽 참조. 靈臺無計逃神矢/ 風雨如磐亂故園/ 寄意寒星荃不察/ 我以我血薦軒輊

7) 쉬서우창은 루쉰과 동향인 浙江 紹興 사람으로 1902년 杭州의 求是書院을 졸업하고 관비로 일본에 유학하던 중에 東京의 弘文學院에서 루쉰을 만나 한평생의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 루쉰이 사망하자 1937년 저우쥘런周作人(1885-1967)과 함께 《魯迅年譜》를 편찬하기도 했다. 北京大學, 北京高等師範學校, 成都華西大學, 西北聯大 등의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1946년에 台灣으로 가서 台灣省編譯館의 관장이 되었고, 1947년에는 台灣大學 국문과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國民黨의 教育改革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는데, 1948년 2월 18일 台灣大學의 숙사에서 암살당하였다.

에 쓸 때 이 시를 처음 발표했고, 12월 19일에는 (루쉰을 기념하는 문장인) <회고懷舊>란 글을 같은 잡지의 第13冊에 투고하면서 이 시를 다시 인용하였다”고 한다.⁸⁾ 따라서 원래 없던 제목도 쉬서우창이 첨가한 것이고, 이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핵심을 찌르는 해설을 주고 있다.

첫 구절은 외국에서 유학하며 받은 자극의 마음을 말하고 있고, 다음은 비바람에 흔들리는 조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셋째는 동포들이 깨어있지 못해 적막한 마음을 참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선 포부를 직접 토로하고 있기에, 평생토록 실천해야만 하는 한 구절의 격언이랄 수 있다(首句說留學外邦所受刺激之心, 次寫遙望故國風雨飄搖之狀, 三述同胞未醒, 不勝寂寞之感, 末了直抒懷抱, 是一句筆生實踐的格言).⁹⁾

쉬서우창의 해설은 간명함에도 청년 루쉰의 堅貞하고 猛烈한 애국심을 명확하게 헤아려 잘 포착해 내고 있다. 그가 변발을 자른 것은 봉건사상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자 민주사상을 자발적으로 접수하겠다는 일종의 선명한 표식이었다. 특히 3행과 4행에서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국의 동포들을 연민하는 마음과 동시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동포들을 깨어나게 하겠다는 루쉰의 올곧은 의지와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心靈’을 뜻하는 문언인 ‘靈臺’로 시작하는 1행에선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랑의 신인 큐피드(Cupid)의 화살에 대한 고사를 빌어 ‘神矢’로 표현되고 있다. 누구든 큐피드의 화살을 맞으면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루쉰이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큐피드의 화살에 맞은 연인으로 비유한 것이다. 2행에선 고향을 ‘故園’으로 표현하며 심각한 재난에 휩싸여 있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風雨如磐’으로 표현하고 있다. 조국은 이미 거센 비바람에 휩싸여 있지만 그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3행에서 ‘차가운 별(寒星)’은 항성인 북극성을 의미하고, 친구의 중심이 되는 이 외로운 별에 시인의 마음을 기탁하여 표현하는 것

8) 張自強 著, 《魯迅先生詩疏證》(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 61-62쪽 참조.

9) 위의 책, 62쪽 참조.

은 중국의 고전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술 표현 수법이기도 하다. ‘荃不察’에서 ‘荃’은 屈原의 《離騷》에 “임금께서는 나의 마음을 몰라주시고, 오히려 참소를 믿고 급히 노여워하시네(荃不察余之中情兮, 反信讒而齎怒)”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荃’은 일종의 향초로 屈原은 이것을 빌어 국왕을 비유했다고 한다.¹⁰⁾ 그러나 이 시에서는 청나라의 황제를 비유한다기보다는 고향에 있는 동포인 중화민족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4행의 ‘軒轅’은 중국의 황제를 지칭하지만 이 시에서는 더욱 광의적으로 炎黃의 자손인 중화민족을, 더 나아가 조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軒轅’은 땅의 중심으로 3행의 하늘의 중심인 ‘寒星’과 대구를 이루며 시의 심미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七言律詩의 형식으로 1931년 2월 10일에 씌어진 <무제無題>란 시에서도 憂民과 愛族으로 말미암은 루迅의 침울하고 처량한 비분의 정서가 배어 있다. 그의 잠문인 <망각을 기념하기 위하여爲了忘却的記念>¹¹⁾에도 수록되어 있는 이 시는 꽃다운 나이에 1931년 2월 7日 上海 龍華의 國民黨警備司令部에 의해 비밀리에 처형을 당했던 ‘좌련5열사(左聯五烈士)’¹²⁾에 대한 추모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봄날 암흑 같은 긴 밤에 익숙해져 있다가
 처자 거느리고 피신할 제 회곳회곳 귀밑머리 세계 늙었어라
 꿈결에 어렴풋이 본 듯한 어머님의 눈물
 성벽 위엔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민당의 깃발
 친구들이 새 귀신이 되는 걸 어찌 참고 볼 수 있으랴
 칼 수풀 향한 분노에 겨우 작은 시구나 구하고
 시를 짓고도 머리를 숙인다, 발표할 곳도 없기에
 달빛은 물처럼 내 검은 상복을 비추는데¹³⁾

10) 위의 책, 69쪽에서 재인용.

11) 이 글은 1933년 4월 1일 《現代》 제2권 제6기에 최초로 발표되었다.

12) ‘좌련5열사’는 러우스柔石(1902-1931), 인푸殷夫(1910-1931), 리웨이썬李偉森(1901-1931), 후에핀胡也頻(1903-1931), 평경馮經(1907-1931)을 말한다.

13) <爲了忘却的記念>, 《魯迅全集》 4(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486-487쪽 참조. 慣於長夜過春時/ 孀婦將雛鬢有絲/ 夢裏依稀慈母淚/ 城頭變幻大王旗/ 忍看朋輩成新鬼/ 怒向刀叢覓小詩/ 吟罷低眉無寫處/ 月光如水照緇衣.

‘좌련5열사’가 국민당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루쉰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칫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때, 거처를 나와 일본인이 운영하는 花園莊 旅館으로 잠시 피난을 하였다. 그곳에서 ‘좌련5열사’에 대한 처형 소식을 접하고 깊은 밤까지 비분하여 잠 못 이루고 있는 루쉰의 모습이 <망각을 기념하기 위하여>란 잡문에 보이고 있다. 이 잡문은 이 시에 대한 창작의 배경으로 가장 훌륭한 해설이라 할 수 있는데, 위의 <무제> 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깊은 밤에, 나는 여관의 뜰에 서 있다. 주위에는 너마 같은 짐기들만이 쌓여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다. 나의 여인과 아이조차도. 나는 아주 좋은 친구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중국이 아주 좋은 청년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비분함 속에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했다. 그러나 나의 오래된 습관이 차분함 속에서 머리를 추켜들더니, 이러한 몇 구절을 모았다:14)

首聯의 “봄날 암흑 같은 긴 밤에 익숙해져 있다가”는 구절은 국민당 통치 하의 白色恐怖의 기나긴 암흑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암시하며, “처자 거느리고 피신할 제 희끗희끗 귀밑머리 세계 늙었어라”는 구절은 처자를 거느리고 피신하는 루쉰의 침통한 심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침통한 심정은 頷聯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언제나 아들의 안위에 노심초사하시는 어머님과, 신흥 군벌인 장제스蔣介石(1887-1975)의 ‘大王’ 깃발들이 성벽 위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암흑 통치의 상황을 동시에 환기시키고 있다. 頸聯에서는 ‘좌련5열사’의 죽음 앞에서도 보잘것없는 추모시나 짓고 있는 자신의 울분을 회한이 서린 목소리로 읊고 있고, 尾聯에서는 이러한 추모시조차도 발표할 수 없는 당시 조국의 억압적인 상황에 대해 몹시 비통해 하고 있다.

<소문所聞>이란 시는 1932년 12월 31일 우치야마 칸조內山完造의 부인으로 內山書店을 중일문화의 교량 역할을 할 정도로 훌륭하게 경영하였던 여

14) 위의 책, 486쪽 참조. 在一個深夜裏, 我站在客棧的院子中, 周圍是堆著的破爛的什物; 人們都睡覺了, 連我的女人和孩子, 我沉重的感到我失掉了很好的朋友, 中國失掉了很好的青年, 我在悲憤中沉靜下去了, 然而積習卻從沉靜中抬起頭來, 湊成了這樣的幾句:

장부 이노우에 미키井上美喜子(1892-1945)에게 써준 작품이다.¹⁵⁾ 이 시에서의 '소문'은 1932년 상하이의 1·28사변으로 폭격을 받은 국제 공동조계지인 자베이구閘北區에 대한 소문을 말한다. 집주인의 호화 연회에 불려와 가슴에 한이 맺힌 채로 시중드는 아리따운 소녀의 형상을 빌어, 루쉰은 憂民과 愛族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연회를 밝히는 휘황한 등불 솟을대문을 활짝 열고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소녀 옥 술잔으로 시중든다
 갑자기 초토가 된 가족이 생각나자
 비단 버선 살피는 척 눈물자국을 숨긴다¹⁶⁾

위의 시는 七言絶句로 한 폭의 스케치와도 같다. 1·2행에선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로운 연회를 벌이고 있는 군벌과 부호들의 파렴치함과 그곳에 불려가 꽃단장을 하고 시중을 드는 소녀들이 등장한다. 외면의 호사스러움과 방탕함을 표현하는 1·2행과 대비되어 3·4행에선 이 소녀들의 내면으로 초점이 옮겨져 그녀들의 울분과 한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戰火로 인해 초토화된 부모와 친지들에 대한 생각과 기녀로 전락한 자신들의 한스런 입장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비단 버선 살피는 척 눈물자국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질박하고 생동감 있는 간결한 묘사는 루쉰의 다른 시와 비교할 때 평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반어적인 풍자를 사용하면서 감동을 배가시키고 있다.

15) 張自強 著, 《魯迅先生詩疏證》(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 294쪽 참조.

16) 《魯迅全集》7(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437쪽 참조. 華燈照宴歡豪門/ 嬌女嚴妝侍玉樽/ 忽憶情親焦土下/ 佯看羅襪掩啼痕.

3. 저항과 전투정신의 상징화

杜甫 시의 풍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침울돈좌(沈鬱頓挫)’는 루쉰의 시에서 현대적인 의미로 전환되어 나타나고 있다. 杜甫 시의 예술적 성취는 무엇보다 그 감정의 강렬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감정의 강렬함을 그대로 내뿜는 것이 아니라 느릿느릿하고 낮고 묵직하게 억제되어 순환하며 기복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루쉰의 시에서도 憂民과 愛族의 정신으로 말미암은 ‘침울’의 정서는 매우 깊게 배어 있지만 그것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힘은 저항과 전투정신의 상징화라고 할 수 있다. <자조自嘲>란 시를 보면, 자신의 자아형상이 해학적이지만 강인한 저항과 전투정신의 화신으로 상징화되고 나타나고 있다.

나쁜 운세가 닥쳐왔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몸도 감히 뒤척이지 못하고 이내 머리를 부딪친다
 해진 모자로 얼굴 가리고 변화가를 지나고
 물이 새는 배에 술을 가득 싣고 격류 속을 떠다닌다
 눈썹을 추켜세워 냉담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맞서고
 머리를 숙이고 기꺼이 아이들의 소가 되려하나니
 비좁은 집에 숨었어도 마음은 늘 한결 같아
 밖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든 상관없지¹⁷⁾

위의 시는 七言律詩로 1932年 10월 12일에 류야쯔柳亞子(1887-1958)에게 써준 작품이다. 이 시의 창작 배경에는 10월 5일 밤 위다푸鄒達夫(1896-1945) 부부가 상하이의 聚豐園에서 그의 만형과 형수를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는데, 루쉰 부부, 류야쯔 부부와 그 딸, 작가 린웨이인林微音

17) 《魯迅全集》7(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2), 147쪽 참조. 運交華蓋欲何求, / 未敢翻身已碰頭。 / 破帽遮顏過鬧市, / 漏船載酒泛中流。 / 橫眉冷對千夫指, / 俯首甘爲孺子牛。 / 躲進小樓成一統, / 管他冬夏與春秋。

(1899-1982)이 참석했다고 한다.¹⁸⁾ 그 당시 루쉰은 1월에 일어난 1·28사변의 영향으로 국민당의 백색 테러로 인한 공포 분위기를 피해 內山書店의 조그만 방 한 칸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러한 루쉰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위다푸는 연회에 루쉰이 도착하자 장난 끼 있게 “이러한 날에 오시느라 수고스럽겠어요?”라고 물었고, 루쉰은 미소를 띠며 “제가 어제 당신에게 대답할 두 줄의 對聯을 생각해 두었지요” 그것은 “눈썹을 추켜세워 냉담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맞서고, 머리를 숙이고 기꺼이 아이들의 소가 되려하나니”라고 회답했다. 그러자 위다푸는 “보아하니 당신의 ‘나쁜 운세(華蓋運)’는 아직도 여전한 것 같군요?”라며 계속해서 루쉰을 골려 주려 하였다. 그러자 루쉰은 “허어 참,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제가 또 半聯을 얻어 그런대로 하나의 작은 시를 만들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다.¹⁹⁾ 루쉰이 말하는 半聯은 이 시의 첫 구절인 “運交華蓋欲何求”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작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의 형식은 옛날 詩體의 하나인 打油體로 내용과 시구가 통속·해학적이며 평측(平仄)과 운율(韻律)에 구애받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首聯에서 ‘華蓋’는 ‘화개운(華蓋運)’으로 스님에게 닥치면 머리에 후광이 덮이게 되어 成佛의 징조로 간주되지만, 속인들에게 닥치게 되면 덮여 가려지게 되어 장애가 될 뿐이다. 루쉰은 ‘화개운’으로 이 당시 그가 겪고 있던 불운한 운명을 해학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翻身’과 ‘碰頭’로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몸도 감히 뒤척이지 못하고 이내 머리를 부딪”치는 內山書店의 조그만 방 한 칸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곳곳이 벽과 장애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頷聯에서는 首聯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헤진 모자로 얼굴 가리고 변화가물 지나고, 물이 새는 배에 술을 가득 싣고 격류 속을 떠다닌다”고 자신의 망측한 처지를 읊고 있다. 망측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의 수배령을 피해 도망 다니기 위해선 문을 나설 때에 헤진 모자로 얼굴을 가려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보다

www.kci.go.kr

18) 張自強 著, 《魯迅先生詩疏證》(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 250쪽 참조.

19) 루쉰과 위다푸의 대화 내용은 모두 위의 책, 251쪽 참조.

좋은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투쟁의 의지는 결코 변함이 없었다. 그것은 생과사를 초월하는 그의 낭만적인 혁명의 전투정신으로부터 기인했다. 이 전투정신은 격류 속에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술을 벗 삼아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해하는 위대한 혁명가의 모습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頸聯의 두 행은 루쉰의 당당한 기풍과 힘찬 풍골, 위엄 있는 자태를 생생하게 표현한 명문구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일찍이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은 이 두 행의 글귀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며 “마땅히 우리들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千夫’는 ‘적’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흉악한 적일 지라도 우리는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²⁰⁾ 또한 ‘孺子牛’의 의미에 대해서도 무산계급과 인민대중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공산당원과 모든 혁명가, 모든 혁명적 문예공작자들은 모두 마땅히 루쉰을 귀감으로 삼아 무산계급과 인민대중의 ‘소’가 되어, 나라를 위하여 조심하며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 평생토록 끝까지 분투해야만 한다”고 하였다.²¹⁾ 마오쩌둥의 말처럼 ‘千夫’를 ‘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상의 오류로, ‘千夫指’는 ‘千夫所指’의 생략으로 ‘못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기에 ‘千夫’는 “여러 사람, 아주 많은 사람, 즉 인민대중(衆人, 衆多的人, 卽人民大衆)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²²⁾ 《漢書·王嘉傳》의 “못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 (설사) 질병이 없더라도 죽게 된다(千人所指, 無病而死)”는 주석을 주고 있는 사실을 보아도 이러한 해석은 신빙성을 확보한다.²³⁾ 아울러 ‘孺子牛’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孺子’와 ‘牛’를 분리하여 ‘孺子’가 무산계급과 인민대중을 의미하기에 ‘孺子牛’는 기꺼이 “무산계급과 인민대중의 소가 되려고” 하는 것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대구에 선명한 대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형식상의 운용은 ‘橫

20) 毛澤東, 《毛澤東選集》 3(北京: 人民出版社, 1991), 877쪽 참조.

21) 위의 책, 877쪽 참조.

22) 王正斌, <“千夫”釋義辨正>, 《恩施職業技術學院學報(綜合版)》 第15卷 第1期(2003), 53쪽 참조. 이 글에서 필자는 ‘千夫’의 출처와 고증을 통해 마오쩌둥 해석의 오류를 바로 잡고 있다.

23) 《魯迅全集》 7(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147쪽 참조.

眉와 '俯首', '冷對'와 '甘爲', '千夫'와 '孺子', '指'와 '牛' 등의 어휘들을 짜임새 있게 배치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증오와 애정의 분명함에 공감을 느끼게 한다.

尾聯에서 루선의 몸은 비록 '비좁은 집'에 숨어 있지만 마음은 '成一統'하다는 것은 '늘 한결같은 소우주'를 가지고 있다는 말로, 외부의 기후가 어떻게 변하든지(그를 에워싼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의 강인한 전투정신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비록 해학적이고 소극적인 어감을 풍기고 있지만, 이러한 해학과 소극이란 假裝 속에서 이를 악물고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루선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당시 극한 좌경으로 흘렀던 創造社의 평나이차오馮乃超(1901-1983)가 그를 '은둔주의(隱遁主義)'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루선식의 답변으로도 볼 수 있다.²⁴⁾

1932년 1월 23일에 일본인 코라 토미高郎富子(1896-?)²⁵⁾ 여사에게 써준 七言絶句의 <무제無題> 시에서도 루선의 강인한 저항과 전투정신의 상징화가 이루어진다.

피가 증원에 뿌려져야 질긴 잡초가 살찌고
추위가 대지를 얼려야 봄꽃이 피어나지
영웅은 간교하기 이를 데 없고 모사들은 병들었구나
중산릉에서는 눈물 흘리며 저녁 까마귀처럼 까악까악 26)

마치 《들풀》의 산문시를 보는 듯한 1행과 2행은 현실의 암흑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선 더욱 많은 희생과 곤경 — 각각 '피'와 '추위'로 상징화되고 있음 — 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암만 밝아도 다시 일어나는

24) 張自強 著, 《魯迅先生詩疏證》(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 257-258쪽 참조.

25) 코라 토미 여사는 1930년에 東京女子大學의 교수가 되었으며 기독교 평화단체인 F.O.R의 일본 부녀운동 조직의 사무국장이었다. 그녀는 일본의 전면적인 중국 침략을 저지하고자 노력하였다. 1932년 1월 인도로 가는 중에 상하이로 방문했는데, 우치야마 칸조의 소개로 루선과 만나 장시간 담소를 나누었다. 루선이 이 시를 썼을 때 그녀는 이미 인도로 간 후였기에 우치야마 칸조를 통해 부쳤다고 한다. 위의 책, 219쪽 참조.

26) 《魯迅全集》7(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431쪽 참조. 血沃中原肥勁草, / 寒凝大地發春華, / 英雄多故謀夫病, / 淚灑崇陵噪暮鴉.

‘질긴 잡초와 忍冬의 생명력을 가진 ‘봄꽃’이란 희망의 상징으로 건인불굴의 혁명정신을 노래하고 있다. 3행과 4행에서는 이 시의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 풍자와 해학을 통해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영웅은’ 장제스를, ‘모사들은’ 당노병이 있는 왕징웨이汪精衛(1883-1944), 고�혈압이 있는 후한민胡漢民(1879-1936) 등을 냉소적으로 비꼬는 어투이다. 1932년 1월1일 국민당은 통일정부의 주석에 린췌林森(1868-1943)을 행정원장에 쑨원孫文(1866-1925)의 장자인 쑨커孫科(1895-1973)을 임명하였으나 정치·군사·재정에 관한 실권은 여전히 장제스에게 있었다. 린췌와 쑨커는 장제스와 왕징웨이, 후한민에게 南京에 와서 국정을 운영할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오히려 장제스는 왕징웨이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쑨커의 권한을 무력화시켜 실각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자 쑨커는 1월 22일 4행에서 나타나듯이 아버지의 무덤인 중산릉에 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실성할 정도로 통곡을 했다고 한다.²⁷⁾ 저녁 까마귀들의 ‘까악까악’ 시끄럽게 우는 소리는 쑨커의 통곡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1934년 5월 30일에 니이 이타루新居格(1888-1951)²⁸⁾에게 써준 七言絶句인 <무제無題>에서는 수많은 민중들이 ‘시커먼 얼굴墨面 — 고생· 굶주림· 근심 등으로 인한 초췌한 얼굴 —’로 ‘잡초 덩불蒿萊’에 묻히어 살고 있는 암울한 중국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수많은 민중들이 시커먼 얼굴로 잡초 덩불에 묻히었나니
누가 감히 대지의 슬픔을 노래하여 읊조릴 수 있겠는가?
생각이 가없이 넓어 광대한 공간에 미치면
소리 없는 곳에서 천둥소리를 듣게 된다²⁹⁾

27) 위의 책, 221쪽 참조.

28) 니이 이타루는 일본 작가이자 문예평론가로, 東京大學의 정치학부를 졸업하고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과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등의 기사를 역임하였다. 1934년 중국을 북에서 남으로 여행했는데, 베이징에서는 저우췌런周作人(1885-1967)을 5월 상하이에 와서는 루쉰과 교류하였다. 張自強 著, 《魯迅先生詩疏證》(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 398쪽 참조.

29) 《魯迅全集》 7(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448쪽 참조. 萬家墨面沒蒿萊,/ 敢有歌吟動

1행과 2행으로부터 루쉰이 느끼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은 아무도 감히 분연히 일어나 이러한 슬픔의 노래조차 부를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이어지는 3행과 4행에서 드러나듯이 적막하다고 해서 적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막의 존재에 의하여 '생각心事'은 낱아지고 그것이 광대한 공간인 하늘과 땅에 가득 찰 때에, 어느 소리보다도 우렁차고 비장한 '천둥소리'가 적막을 깨고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有無相生'의 변증법은 루쉰의 저항과 전투정신의 심리적 기제로 모든 것을 회의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滑稽美: 풍자와 해학을 통한 비판적 현실 인식

앞서 살펴보았던 시들인 <소문>, <자조>, <무제>(1932년 1월 23일에 씌어진 작품) 등에서도 풍자와 해학은 루쉰 시의 심미적 장치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심미적 장치의 목적은 조국의 암울한 정치적 상황·핍박을 당하는 민중·퇴보하는 혁명의 기세·현실을 부정하는 저항정신의 사그라짐 등 지금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풍자와 해학의 수법으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인간상을 구현하며 익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려 한 것이다. 이것을 숭고미와 대립되는 미적 범주로 '滑稽美'라고 한다. 루쉰의 '滑稽美'란 미의식의 효과는 풍자와 해학을 통해 독자들에게 냉소적인 웃음을 자아내게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한다.

1918년 5월 15일 《신청년新青年》 제4권 제5호에 발표된 <큐피드愛之神>라는 시를 보면, 사랑의 신인 큐피드와 그 화살을 맞은 사람과의 익살스런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한 어린 소년이, 공중에서 날개를 펼친다
 한 손에는 화살을 엮고, 한 손에는 활을 당긴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살 하나가 앞가슴에 쏘아진다
 “어린 선생님, 당신의 무분별한 보살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알려주셔야지요, 제가 누굴 사랑해야만 하는지”
 소년은 당황해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후유!
 당신도 심장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지요?
 당신이 누굴 사랑해야만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제 화살은 이미 날아갔으니까요!
 당신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당신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땐 목숨 걸고 자신을 죽이세요”³⁰⁾

오사 신문학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성찰은 봉건예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성의 해방과 연애의 자유, 혼인의 자주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남녀간의 사랑은 신문학가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진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시는 다른 애정시와 비교할 때 구상과 수법에 있어서 상당히 독특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련과 욕망이란 사랑의 본질을 읊은 것도 아니고, 사랑을 얻었을 때의 행복감과 사랑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노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사람이 “누굴 사랑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자 큐피드는 당황하여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당신도 심장을 가진 사람인데” 머리가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깨우친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사랑이란 감정만을 알려준 큐피드는 어머니의 강권에 의해 억지로 중매결혼을 한 루신에게는 애증과 곤혹의 상징이기도 했다. 마지막 행의 의미는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듯이, 사랑은 自己愛로부터 출발한다. 남을 사랑한다는 말은

30) 《魯迅全集》7(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2), 30쪽 참조. 一個小娃子, 展開翅子在空中, / 一手搭箭, 一手張弓, / 不知怎麼一下, 一箭射著前胸, / “小娃子先生, 謝你胡亂栽培! / 但得告訴我: 我應該愛誰?” / 娃子著慌, 搖頭說, “唉! / 你是還有心胸的人, 竟也說這宗話, / 你應該愛誰, 我怎麼知道, / 總之我的箭是放過了! / 你要是愛誰, 便沒命地去愛他: / 你要是誰也不愛, 也可以沒命地去自己死掉.”

자신의 가치와 남이 가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단지 살아있는 산송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큐피드는 “당신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땐 목숨 걸고 자신을 죽이세요”라는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 누굴 사랑하느냐는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사랑의 방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관습적인 일상의 통념을 비트는 루쉰 특유의 滑稽美가 드러나고 있다.

1931년 겨울에서 1932년 겨울까지 五言絶句로 창작된 4수의 <교수 잡가 教授雜詠>에서도 당시 대학의 교수직에 있던 北平師大 국문과 주임인 첸첸통 錢玄同(1887-1939), 復旦大學의 자오징선 趙景深(1902-1985), 暨南大學 문학원의 장이핑 章衣萍(1900-1946), 復旦大學 신문학과 주임인 셰류이 謝六逸(1898-1945) 등의 파렴치한 행태를 날카로운 풍자를 통해 각각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중 1932년 12월 후반에 쓴 <첫째 수其一>를 보면 첸첸통이란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독설에 가까운 풍자와 결합하여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죽는 법을 만들고도 스스로 죽지 않으면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마흔을 넘기네
 그러니 그대 살찐 머리 걸고 도박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변증법에 맞서 저당 잡히면서³¹⁾

첸첸통은 1906년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와세다대학 사범과를 수학했고 1908년 루쉰과 쉬서우창 등과 함께 장타이엔 章太炎(1869-1936) 선생의 문하에서 함께 공부하며 ‘光復會’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1912년 귀국하여 北京高等師範學校(北師大 전신)과 北京大學豫科의 교수를 겸임하면서 신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신청년》을 편집하였다. 1927년부터 北平師大 국문과 주임을

31) 《魯迅全集》 7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435쪽 참조. 作法不自斃./ 悠悠過四十./ 何妨賭肥頭./ 抵當辯證法.

맡았던 저명한 言語·文字學者였다. 처음 두 사람의 관계는 그가 루쉰에게 《광인일기狂人日記》를 쓰게 해 《신청년》에 실어 줄 정도로 우의가 돈독했고 진보적인 사상도 일치했다. 20년대 중반에 첸첸통은 일본의 14세기 대학자 겐코법사兼好法師가 《도연초徒然草》란 책에서 “장수하는 것이 치욕이 될 수 있다. 설령 오래 산다 해도 40살 이내가 좋다”란 글을 읽고, “사람이 40살이 되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 죽지 않으면 당연히 총살형에 처해야 한다(人到四十就該死, 不死也該槍斃)”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³²⁾ 사회적 저명인사인 그가 사람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 생기는 私利私慾과 人情에 대한 집착을 극단적으로 경계한 말로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40살이 넘자 사람이 점차 퇴영적으로 변하여 “여유롭고 편안한” 교수 생활에 안주하였다. 이러한 풍자가 위의 1행과 2행에서 나타나며, ‘作法自斃’란 秦나라 채상 商鞅에 대한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죽다”란 고사를 뒤틀어 루쉰이 첸첸통의 언행불일치를 신랄하게 공격한 것이다. 또한 심지어 그는 학생들이 진보 사상에 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지만, 변증법은 과목으로 개설할 수 없다(頭可斷, 辨證法不可開課)”고 하며 후안무치한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³³⁾ 이것에 대한 풍자가 3행과 4행에서 보이는데, 살찐 통통한 체형을 가진 그의 실제 모습에다가 지위를 얻더니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그가 오버랩되고 있다. 두 사람의 우의는 사상적 차이로 말미암아 점차 멀어졌고, 루쉰이 상하이로 간 후 더욱 소원해졌다. 1929년 5월 루쉰이 베이징을 잠시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은 만났지만 아무 할 말도 없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미 이때부터 우의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³⁴⁾

1932년 겨울에 七言絕句로 쓴 <손님의 나무람에 답함答客誦>을 보면 루쉰이 늦게 얻은 아들 하이잉海嬰(1929-2011)에 대한 깊은 父情을 사나운 호랑이에 비유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2) 張自強 著, 《魯迅先生詩疏證》(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 282쪽 참조.

33) 《魯迅全集》7(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436쪽 참조.

34) 張自強 著, 《魯迅先生詩疏證》(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 281쪽 참조.

무정함이 진짜 호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제 자식 사랑이 어찌서 대장부가 아니리오?
 사나운 바람 일으키며 포효하는 호랑이조차도
 제 새끼 살피기 위해 뒤돌아본다네³⁵⁾

1행과 2행에서는 민간에서 널리 회자되는 “호걸은 마땅히 어린이와 여자의 정이 없어야 한다(豪傑應無兒女情)”는 말을 존중하지 않고 전복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려는 미의식인 滑稽美가 드러난다. 3행과 4행에서 ‘興風狂嘯者’는 호랑이를 비유하는 말로, 속담에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른다(雲從龍, 風從虎)”³⁶⁾는 말로부터 “사나운 바람 일으키는 포효하는 호랑조차도”라고 번역하였다. 또한 ‘於菟’는 초나라 사람들이 호랑이를 일컫는 말로 ‘小於菟’는 ‘호랑이 새끼’를 말한다.³⁷⁾ 백수의 지존인 호랑이조차도 자식 사랑에는 똑같다는 호걸과 호랑이를 동위에 놓는 해학적인 표현을 통하여, 당시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는 주의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루쉰 식의 답변을 줌과 동시에 父情에 대한 깊은 연민을 자아내고 있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쉰은 시란 장르에 있어서도 ‘立人’을 위한 개척의 정신과 함께 시인으로서의 개성을 심오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시 창작이란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언어와 형식상의 실험을 하였다. 최초의 시를 비롯하여 대부분이 古體詩의 형식으로 써졌지만 ‘백화시운동’의 열기와 함께 1918년 5월에서 1919년 4월까지 《신청년》에 <꿈> 등 6수의 시를 발표하

35) 《魯迅全集》7(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439쪽 참조. 無情未必眞豪傑, / 憐子如何不丈夫? / 知否興風狂嘯者, / 回眸時看小於菟.

36) 張自強 著, 《魯迅先生詩疏證》(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 292쪽 참조.

37) 상동.

기도 하였고, 1931년 12월에서 1932년 1월까지 그가 주관한 左聯의 기관지인 《사거리十字街頭》에 4수의 민가체 정치풍자시인 <공민 교과목의 노래> · <잘난 놈들의 노래> · <난징민요> · <'언사 논쟁'의 노래>를 연속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情感과 格調를 찾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애당초부터 의식의 근저에 자리 잡았던 한자의 聲韻과 格律이 시를 형성하는 기초라는 심미관에 의해 실패를 맞이할 운명이었다. 그에게 시는 반드시 형식이 있어야 했다. 형식의 자유로움은 新詩의 산문화를 초래하여 시에 고유한 예술적 매력을 상실케 하고 중국인의 심미적 의식에도 부합치 못한다는 것이 그의 시론이었다. 혁명의 과도한 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구호나 혁명의 주장이 시 속에 채워진다면 시가 슬로건이 되어 시의 심오함이 부족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루쉰의 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古體詩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작품들이 단순히 古體詩의 전통을 계승하였다기보다는 그의 삶과 사상에서 묻어나는 현대적 의미의 전환을 거쳐 탄생되어진 산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그러하기에 그의 시에서는 자신의 가치와 이상이 시에 대한 심미관과 융합되어 드러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심미적 특색으로 ① 憂民과 愛族의 전통사상의 계승 ② 저항과 전투정신의 상징화 ③ 滑稽美-풍자와 해학을 통한 비판적 현실 인식이란 세 개의 축으로 분석하였다.

< 參考文獻 >

- Jenner, W. J. F. trans. 魯迅詩選 *Lu Xun Selected Poems*.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81.
- Haft, Lloyd, ed. *A Selective Guide to Chinese Literature 1900-1949: The Poem*. Leiden: E.J. Brill, 1989.
- 《魯迅全集》 1-16,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 毛澤東, 《毛澤東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91.

- 張自強 著, 《魯迅先生詩疏證》, 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
- 程光燾·吳曉東·孔慶東·郜元寶·劉勇 主編, 《中國現代文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0.
- 彭定安, <論魯迅詩學—“魯迅藝術世界”之構造研究之一>, 《社會科學輯刊》第4期(總第129期)(2000), 144-149.
- 王正斌, <“千夫”釋義辨正>, 《恩施職業技術學院學報(綜合版)》第15卷 第1期(2003), 53-55.
- 李金濤, <“前五四”的命名及其對考察中國近代詩歌轉折的意義>, 《文學評論》第6期(2005), 114-118.
- 魯迅 著, 周振甫 注, 《魯迅詩歌注》, 江蘇: 江蘇教育出版社, 2006.
- 章永林, <論魯迅與周作人新詩創作的異質性>, 《通化師範學院學報》第28卷 第7期(2007년 7월), 29-31.
- 徐軍義, <論魯迅詩論中的民族性特征>, 《長城》10期(2012년), 92-93.
- 王吉鵬·翟恩存, <先生本色是詩人—評李梓, 李楠《魯迅詩論稿》>, 《淮北職業技術學院學報》, 第11卷 第3期(2012년 6월), 142-144.
- 하정옥, <魯迅의 新詩(II)>, 《中國語文學》제2집(1981), 대구: 영남중국어어문학회, 39-52.
- 김소현, <魯迅 詩意識에 나타난 傳統의 의미와 近代性>, 《石堂論叢》제23집(1996), 287-342.
- 루쉰, 유세중 옮김, 《들풀》, 서울: 숲, 1996.
- 정우광, <중국 新詩에 나타난 繼承과 移植 문제연구>, 《中國語文論叢》제24집(2003.6),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395-415.
- 루쉰 지음, 김영문 옮김, 《루쉰, 시를 쓰다—루쉰시전집》, 서울: 역락, 2010.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Lu Xun's poems, especially focusing on his classical poems, and the prose poems in Wild Grass 野草 excluded. Lu Xu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classical Chinese poetry during his lifetime, writing not only some eighty

surviving poems but also different styles and forms. His artistic achievement is superb and has a special significance in that his poems reflect the spirit of the age.

This study also focuses on analysing three aesthetic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Lu Xun's poems, and therefore this contains three parts, together with introduction and conclusion. Part One examines his unique poetic characteristic that his poems are full of not only sincere and guileless sympathy for the oppressed compatriots but also his ardent patriotism. Part Two explores his second aesthetic characteristic that his poems symbolize his rebellious spirit against the facing reality, through which his poems can achieve a successful shape and very effectiveness. Part Three analyze his third aesthetic characteristic that his poems use lots of satiric and witty expressions for conveying his merciless socio-political criticism, and this third aesthetic characteristic is a hallmark of Lu Xun's poems.

Keywords: Lu Xun's Poems, Lu Xun's Classical Poems, Lu Xun's Ballad,
Lu Xu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2. 31.	2013. 2. 6.	2013. 2. 14.	2013. 2. 21.	2013. 2. 28.